

특별기고



고재중  
시인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추석만 되면 우리 국민 2000여 만 명이 고향으로 대이동을 한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자못 흐뭇해진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곳을 잊지 않고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김사인 신인의 '코스모스'라는 시가 있다. '누구도 핍박해 본 적 없는 자의/ 빈 호주머니여// 언제나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 그간의 일들을/ 울며 아버님께 여쭙 것인가'라는 짧은 시이다. 이 시는 고향을 떠나와 '누구도 핍박해 본 적 없이' 열심히, 올바르게 노력했지만 늘 '빈 호주머니'일 수밖에 없는 객지 생활의 고달픔과 서러움을 토로한다. 한때 그 고달픔과 서러움의 수많은 일들을 '언제나 고향에 돌아가' '울며 아버님께 여쭙 것인가'라고 묻는 데서 문득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다. 누구도 핍박해 본 적이 없기에 오히려 무수한 핍박을 견딜 수밖에 없었을 객지 생활의 고달픔과

돌아가고, 기다리고, 함께하는 추석이어라

그 밑바닥 설움까지를 아버지 앞에서 울며 여쭙 수 있는 고향은,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며 그 위안이 본원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젊은 날 10여 년을 서울·부산 등지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밤 8시에 출발하면 이른날 아침 6시에 도착하는 아수라장 같은 야간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왔다. 먹을 게 없어 늘 새까만 보리밥과 고무마로 끼니를 때우고, 밤이 먼 뒤란 대숲 쓸리는 소리에 한숨과 탄식만을 속아 내던 고향이 그래도 좋다고 기억이 내려왔던 것이다. 이는 객지 생활의 고통과 상처를 울며 내보일 수 있는 부모의 너른 품이 있었기 때문 아니던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추석 때마다 기를 쓰고 고향에 돌아오면 길가에 무죄하기 짝이 없는 코스모스가 하늘거렸다. 또 들뜬엔 차랑차랑 황금 물결이 넘쳐 나고, 집집마다에선 감들이 주황빛 앞전등을 무수히 켜고 있었. 정자나무가 늠름하게 선 동구 밖 주막에선 크나큰 돼지를 잡아 집집이 고기를 나누고, 돼지머리며 내장은 안주로 끓여서 고향에 돌아온 이들에게 소주를 권하는 큰 형님들이 있었다. 그 뜨거운 소주를 얻어 마시고 고살길을 돌아마침내 대문 앞에 서면, 어느새 부모님은 깨

끗하게 쓸어 놓은 마당을 버선발로 가로질러 나오시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런 환대가 어디 있던가. 오래 전에 쓴 나의 졸시 '추석'은 이렇다. "창호지에 어리는/ 달빛에 몸 뒤척이다가/ 못내 설레는 가슴 마루 끝에 나서서/ 활짝 열린 사립을 넘어보다가// 사무치는 그리움/ 더욱 못 이겨/ 환한 마당 질러 동구에 나섰다가/ 동구 옆 새하얀 메밀밭 가를/ 웃고름에 눈물 적시며 동 통 서성이다가// 이윽고는 타는 가슴 불나서 불나서/ 머인 신작로까지 나갔다"가'로 이어지는 시이다.

이 시는 그토록 기다려도 추석에 고향에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고통을 표현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가슴 '애리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자 그 자체로 설레고 기쁜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일찍이 객지 생활을 접고 지금은 고향 집에 정착하여 서울에 '유학'간 외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입장이 됐다. 이는 정병호 기쁜 일이지만, 우리 마을엔 이미 기다림을 잊어버린 할머니들이 꽤 있으니 마음이 쓰리다.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마침내 가족이 함께 모인 이 집 저 집에선 누나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마을 주막 마당에선 젊은이들의 웃

판이 벌어지고, 밤에는 마을회관 가설무대에서 쿡쿡 대회가 열리곤 했다. 어떤 마을에선 풍물 굿이 열리고 또 어른들께 합동 세배를 올리기도 하지만, 내가 살던 마을에선 신식 문물(1)을 일찌감치 받아들여 노래자랑 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읍내에서 불러 온 악사들이 서툰 기타와 드럼을 치면 음정 이탈이 태반인 하룻밤 가수들이 '고향역', '타향살이', '흠에 살리라' 등의 노래를 왜장쳐 불러댄다. 결국에는 상풍으로 받은 양은 뉘비며 밥술을 두드려먹은 마을이 밤새도록 놀았다.

그렇게 즐거운 마당을 빠져나와 몇몇 친구들이 냇가에 나왔으면 티 한 점 없는 하늘에 환한 보름달이 온 누리에 은빛을 뿌려 대는 장관이런! 그 달빛에 소음과 시멘트와 먼지로 뒤범벅된 몸과 마음을 씻다 보면 이윽고 씨르래기며 귀뚜라미가 우리의 영혼을 울렸다. 하지만 추석 전날 휘잉~ 차로 와서, 추석날 새벽에 차 밀린다며 휘잉~ 떠나 버리고 마는, 요즈음 고향의 품에 남는 것은 흥산 역기식 박스와 기삼만 원이 든 돈 봉투뿐이다. 아무리 추석 명절에 2000여 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들, 이미 고향은 더 이상 마음 내려놓고 객지 생활의 일을 울며 아버지께 여쭙 곳이 아니니,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社說

70년 적대 관계 청산 남북 경험 기대된다

남북 정상이 이끌어 낸 9월 평양선언은 한반도에 핵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선포한(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 공동선언문에 담긴 6개항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조항이 70여년간 이어진 남북 간 적대 관계의 완전한 종식이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는 평양 선언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분계선 일대에 완충지대를 두고 당장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고 서해와 동해에도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금지하는 수역을 설정했다. 전투기는 휴전선 상공 20km(사부전선)-40km(동부전선), 헬기는 10k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도록 금지 구역도 마련했다. 경제 협력은 공동선언문에서 두 번째

로 강조한 분야다. 동해와 서해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하기로 명시한 것은 타임테이블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협력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UN의 대북 제재 상황이라는 짐을 감안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에 경제공동투자, 동해에 관광공동투자를 조성하기로 했다. 남북이 평양선언을 통해 70여 년간 지속돼 온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크다. 물론 미국이 주축이 돼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지만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UN총회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담은 평양선언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올해 안에 남북 간 경제 협력이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선언에 화답한 것도 다음달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북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해 남북이 함께 풍요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명절에 더 힘든 이웃 생각하는 착한 천사들

추석이 사흘 앞이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면 누구의 가슴에나 고향의 밝은 달이 떠오른다. 바빠서 잊고 살았던 부모와 친척들이 생각나고, 항상 힘이 됐던 이들과 고마운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마련이다. 낙낙하지 못한 형편에도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든 손이 정겹기만 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울હે는 명절 특수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한다. 일자리 잃은 가장과 취업 못한 자녀들, 여기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목 경기가 아예 실종됐다고 아우성이고, 서민들은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울상을 짓는다. 그럼에도 한쪽에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정성들이 이어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옛그계 광주 금호 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이 찾아와 5만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건네며 "명절에 외롭고 힘들게 보내실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고 한다. 이 여성은 남편이 사고를 당해 산재연금으로 생계를 잇는 낙낙하지 못한 살림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100만 원을 마련했다니 이런 천사가 또 어디 있을까. 이외에도 북구 석곡동 주민센터에 쌀 100포대, 동구에 쌀 50포대를 놓고 간 의명의 기부 천사들이 많다. 이들의 선행은 추석을 맞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 준다. 아름다운 이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아직 살만하다. 어려울수록 나누고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이 넘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평양 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은 향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한 합의이다. 남북은 육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상호 적대 행위를 종식하는 내용의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간 남북 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 등 전쟁 위험과 긴장 상황이 조성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매우 구체적인 이번 북핵합의들은 남북 간 사실상 종전 선언이라 할 만하다. 앞으로 이 같은 합의가 잘 지켜지면 군비 통제와 군비 축소 등 한반도 평화 체제로의 이행이 더욱 용이해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남북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 서해 경제 및 동해 관광 투구 조성 등은 지난 10·4 선언 이후의 상황으로 남북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산가족 문제 등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변화와

남북 정상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공은 북미 간 협의로 넘어갔다. 북한이 검증의 논란이 있었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를 관련국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가운데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국제 사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 하기는 하였지만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북한이 공표한 조치를 토대로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우호 외무상과의 만남,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 간 실무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향후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이 보인 조치를 신뢰하고 종전선언을 위해 한 발짝 다가간다면 비핵화 협상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뉴욕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문 대통령 덕분이라고 하였고 미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수석 협상가로 명명 하였다. 우리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하여 지연되었던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결된다면 올해 더욱 더 성과 있는 이벤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간 협회가 잘 진행되어 남-북-미-중 정상이 서울 혹은 워싱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게 된다면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보다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물론 최종 비핵화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와 앞으로 종전선언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변영의 시대는 보다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말은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이다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 또한, 주변에 대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배려 어린 말이다. 얼마 전 TV프로그램에 한 연예인이 시집 온 며칠 후 시댁 모임에서 음식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음식을 먹으며 얼굴을 찌푸렸는데 시어머니가 다가가 '아가! 음식이 참 맛있었다. 네 음식을 먹으니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말 한 마디에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 음식을 도맡아 해 왔다고 한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땅에 떨어지면 씨앗과 같다. 마음의 땅에 약한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나에게 불행이 될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고, 마음의 땅에 선한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될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감동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에서 필자의 마음에 다가온 대화 한편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넨 말 중에 "비록 수준은 좀 낮

을 순이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였으니,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였고 이어 문 대통령은 "최고의 환영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습시다" 라고 화답하였다. 이 짧은 두 대화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마움의 마음이 담긴 대화였다. 이 말 한마디가 복의 씨앗을 뿌린 셈이다. 한반도의 희망적인 미래를 이 대화 한편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배려어린 말 한마디의 값어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구시화복문'(口是禍福門)이라는 말이 있다. 입(口)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복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천냥 빛을 갚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칭찬과 고마움이다. 안타깝게도 추석이 지나면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는 친지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말의 실수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급기야는 파국으로 치닫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앞

서 언급했듯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음식이 다소 맘에 다 차지 않아도 칭찬을 통해 며느리의 기를 살려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한 예를 봐도 알 수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일수록 말에 대한 예민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 또 하나의 예가 있다. 70대 노부부가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 노을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의 뺨을 갑자기 때리고 흐느끼며 울었다. 남편이 뺨을 때린 그 이유를 묻자 아내는 40년 전 명절, 시댁에서 오늘날같이 노을 지는 저녁녘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창피를 준 그 때가 갑자기 떠올라 그때 억울한 마음이 되살아나 뺨을 때렸다고 한다. 이처럼 말이 무서운 점은 바로 한번 뺨으면 주위 답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세월이 가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이번 추석에는 서로 간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주변을 살펴봤으면 한다. 감사의 말과 칭찬으로 대보름달처럼 환한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無等鼓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남북의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던 판문점 1차 정상회담. 세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린 도보다리 위 긴 대화는 한 편의 무성영화였다. 그렇게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봄. 4월의 눈부신 햇살은 이제 따스한 가을볕으로 바뀌었다. 9월의 평양은 설렘보다 익숙함으로 다가왔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때의 강렬한 추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두 차례 만난 두 정상은 포옹하며 서로를 반겼고, 문 대통령은 순안공항과 거리에 환영 나온 평양 시민을 향해 90도 '폴더 인사'를 했다. 북한에서 90도 인사는 최고 존엄의 예가 주는 영광은 엄정할 것이라고 한다. 첫날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단연 카퍼레이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무게차를 타고 평양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는 장면은 다음날 전국 신문의 1면 사면을 통일할 만큼 파격적이었다. 파격은 둘째 날에도 이어졌다. 두 정상

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핵시설 영구 폐기를 통한 비핵화와 사실상 남북의 '종전선언'이라 할 수 있는 군사 긴장 완화 조치,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고 한민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 경험 이 담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나온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또한 문 대통령이 5·1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관람한 뒤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연설할 때 15만 관중이 기립 박수를 보낸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등정. 두 정상은 20일 천지를 배격으로 손을 맞잡아 들어올렸다. 백두산 날씨는 두 정상의 표정만큼이나 화창해 한반도의 앞날이 패정함을 알렸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역사적인 순간들이 이벤트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초석이 되고 8천만 민족에 멋진 추석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유족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평양의 가을, 3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